

이렇게 들었다

바른정치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라

بات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바른 일을 서로 의논하여 몸소 지킨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느냐. 바지국의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한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바지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어, 삼가야 할 것을 알고 도리를 어기지 않는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그 나라 사람들이 수행자를 공경하고 제행이 청정한 이를 존경하여 공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도리를 지킨다면 그 나라는 언제나 안온하여 갈수록 더 흥성할 것이다. <장아함 유행경>

부처님이 아난에게 한 말이다. 바른 정치란 일상생활의 도리, 즉 삼사를 지키며 서로 공경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늘 이와는 반대로 간다.

지난해 말 벌어진 민주당 의원 3인의 자민련 입양이 연초부터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자민련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야냥거리는 말로 자민련 살림살이를 걱정해 민주당이 크게 부조한 것이라고도 한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연간 보조금이 23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술 더떠 민주당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고 변명하며 일관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기에 가정맹어호(家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자는 "정(政)은 정(正)이다"고 했다. 백성을 편안케 할 방법은 오직 '정(正)' 뿐이기 때문이다. 정(正)이라는 것은 곧 '바른 길, 바른 도리'다. 부처님이 늘 강조했던 것도 바로 '정법(正法)'이다. '바른 정치'에는 칼과 몽둥이도 없고 원망도 없다"고 한 것은 정법이 정치의 최우선 가치임을 역설한 것이다.

부처님은 교단의 발전을 위해 임금 가지 법을 설했다. 그중 으뜸이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아야 하며, 권세와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원칙을 지키라는 가르침이다.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정당의 이익에 부합되는 측면을 우선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이익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 탐욕에 쫓겨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일지 만무하다. 하지만 모범은 못 보더라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 민주당 의원 3명의 당적변경은 양당체제라는 총선민의를 거스르는 행위이자,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한 행위다. 사회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해놓은 일정한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일부의 편의에 따라 바꿀 수 없음을 물론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지켜져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올해는 제발 바지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한명우 기자

불자세상보기

한국경제 비탈길 올라가려면...

생산 둔화-실업 증가

구조조정 아직 먼길

부실이 많이 남아있고 엄청난 액수의 공적자금도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경법을 써야 한다. 기업과 금융을 세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퇴출시키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회생가능하다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표관리를 하고, 경쟁력이 있고 회생가능한 경우는 자력에 맡겨두는 것이다. 목표관리는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주고 계속 그 목표를

상향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담보대출비중·수익성 등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자금보충·상호출자·부채비율에 대해서 목표를 주고 향상시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목표관리를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또는 사업부를 매각하기도 하고 타기업이나 은행과 합병도 하고 외자유치도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과 금융의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 즉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변화에는 위기의식이 요구된다. 즉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금융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이것을 소홀히 하였고 생각된다. 한국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진

건전 소비풍토 조성

"나부터 먼저 바뀌자"

행시키고 규제완화, 노동의 유연성, 개방경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고난은 애써 비탈길을 오르는 것과 같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그리고 그 비탈길은 미망의 세계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불성을 찾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지만, 그래서 한층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노부호
서강대 교수
경영학

면 경제 주체로서의 '나'와, 한 인간으로서의 '나', 불자로서의 '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현명한 소비를 최우선 조건으로 삼고, 아무리 내 '것'이라도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지 않으므로써 절약하는 정신을 생활습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요이상 욕심을 내는 어리석음도 없어야 하겠다.

세상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그 모습을 결정지어 간다. 나부터 바뀌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세해는 늘 새 소망으로 부른다. 거기엔 희망과 기대가 자리한다. 불자들은 새해 어떤 발전을 하고 있을까. 이들의 새해 설계를 통

해 불자들이, 그리고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채워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불자들의 2001년 새해소망

올해 꼭 자원봉사 동참

늘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참된 삶이 아니다. 2년도 안된 직장생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나도 많다. 욕심이 앞섰던 탓도 있지만 주변의 여건이 좋지 못한 탓도 있다. 사실 여건 탓만 하다보니 처음의 열의가 식어 버리기도 했다.

올해는 직장생활의 초심으로 돌아가 나 먼저 변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런 다음에 힘이 닿는대로 주된 여건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칠 작정이다. 집 가까이 살고 있으니 불사는대로 법당에 가서 마음을 닦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여력이 된다면 자원봉사 활동도 해 볼 계획이다.

친구들로부터 가끔 인터넷 상에서 불교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지 않다는 불만을 듣는다. 사실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왔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 포교에 대해 많은 불교인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댄스 경연대회나 가요제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도 아쉽다. 올해에는 동생들과 함께 불교계에서 여는 청소년 행사에 참석해 함께 뛰놀고 싶다.



박국석
(26·서울 종로구 견지동/직장인)

절에 자주 찾아가 참선

3년전 아내에 이끌려 처음으로 절에 갔었다.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였다. 그 이후 부처님 오신날이 나 연말에 두세 차례 절을 찾았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혼자라도 절에 가고 싶어질 때가 있다.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는 일이 잘 안될 때면 나도 모르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싶어진다.

올해에는 자주 절에 나가기도 하고 참선도 해 볼 생각이다. 기대는 것이 올바른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런 마음도 고쳐볼 작정이다. 아마도 아내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과 우연히 종교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교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스님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스님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안타깝기도 하다.

많은 스님들을 친견하고 지혜를 배우고 싶다. 욕심이지만 우리 사회의 정서와 관련된 스님이 많이 나와 국민의 정서까지 지지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이동현
(38·서울 관악구 신림동/자영업)

애정으로 학생들 교육

배움의 한해, 가르침의 한해가 덧없이 가고 또 시작됐다. 갈수록 거칠어져가는 아이들과 삭막해져만 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참다운 스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면서 부처님 법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학교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질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포기하고 좌절이 두려운 하지만 올해는 내 자신부터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신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매를 들기보다는 부처님 말씀 한 마디를 해주며 자비와 정성으로 아이들을 대할 생각이다.

교사불자연합회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졌으면 하는 기대도 갖는다. 학교 현장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불자 선생님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의 도량 일구는 지혜를 모으길 서원한다.

아이들에게는 자랑스런 아빠가, 아내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 위치에서 가장 불자답게 사는 것이라 믿는다.



이호영
(53·경기 부천시 소사구/교사)

한가지라도 실천신행

새해에는 단 한가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할 것이다.

포교사단 군포교특설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매주 호국 백일사, 삼승사, 동해사 법당과 수원교도소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이 실천신행으로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든다. 그래서 올해에는 불자들 스스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행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된 신행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불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삼보에 귀의하는 불자라면 부처님과 불법의 가르침 그리고 청정한 승단을 모델로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이다. 우리 신도교육은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깨우쳐 주지 못하고 있다. 불교교리를 알면 저절로 행위가 나오는 만큼 기록위주의 불교교육을 바꾸기 위한 신도교육이 올해에 정착되길 바란다.



임희웅
(69·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포교사)

평화통일 간절히 기원

새해에도 50년 동안 해 온 새벽 기도를 통해 남북 통일과 불교 발전,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발원할 것이다.

이북 황해도 수안군 대성면에 계신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평생 소원인 남북의 평화통일을 더욱 간절히 기원할 것이다. 통일은 국민 모두가 동포애로써 한마음이 될 때 가능하기에 불자들부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

해방이후 계속된 불교계의 평화와 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지금처럼 승가의 계율이 계속 흐트러진다면 불교는 엄청난 퇴보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승가의 청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국민의 존경을 받는 민족의 종교로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님들도 대오각성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의 재정공개를 통한 삼보정재의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사찰 재정의 공공성을 제재화하고, 종회에 재가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동시에,地藏경 기도를 통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서원하는 바이다.



양진교
(77·서울 강남구 서초동/법사)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연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봉송황토마을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안전해방'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안전해방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골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남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발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물렁없으며 항지방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강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한 복용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불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및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강제 삼시다. 프로에서 불기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한 약재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약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감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하여 피로를 제거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대진장